

# 5월의 메모



전호부화장 전무 김 영 환

## ◎ 5월의 기상

바람이 약하고 산과 들에 아지랑이가 끼나, 때로는 대륙풍의 통과로 봄바람이 강해지고 황사(黃砂) 현상이 일어난다. 일조시간은 매일 약 1분35초씩 증가하여 월초 13시간45분에서 14시간34분으로 증가한다. 평균기온은 서울 16.3°, 대구 17.6°로써 전 달보다 약 5°가 높은 분포를 보인다. 5월에도 역시 뉴겟슬병 유행에 주의해야 한다. 너무 건조하면 케이지 계사 바닥에 물을 뿌린다.

## ◎ 업계 소식

(1) 미국의 옥수수 시세 하락……금년 1월의 132달러보다 7달러 이상이 하락되어 7월 선적분이 C&F 125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미국의 옥수수가격은 5월옥수수 파종 후 심한 한발, 장마만 없으면 큰 변동이 없으리라는 예상이다. 한국의 배합사료 가격도 약간의 상승은 예상되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 가축약품 업계는 금년하반기에 일부 약품의 공급사정이 좋지 못할 것으로 우려를 은근히 표명하고 있다. 당국은 외환사정 호전을 목적으로 금년에 가축약품 수입에 필요한 외화배정을 작년 실적과 비슷한 160여만불로 제한 했다고 한다. 금년 사료 생산과 양계 사육이 작년보다 20%이상 증가한다고 볼때 이에 소요되는 약품도 20%가 늘어 날것은 확실하다. 현명한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3) 육용용 순계 도입 허가……농업처럼 좋은 씨앗이 중요한 산업도 없을 것이다. 우량국산계를 개발하는 데에는 좋은 씨앗(순계)이

꼭 필요하다. 정부는 금년부터 육종을 목적으로 하는 순계(Pure line)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국의 건전한 양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보여진다.

(4) 대한 사료공업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대한도계장이 중원농산의 김남영(과거 서울마장동 도축장 경영)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매 되었다고 한다. 지불조건은 현찰 2억4,000만원과 AID차관으로 구입된 3,000만원의 기계구입 대금의 상환을 책임 진다는 조건이다.

## ◎ 4월의 산물시세 및 전망

(1) 알값—특260원 대230원 중210원 소190원 경160원 3월하순에 특270원 대250원까지 상승했던 난가는 4월들어 예상대로 하락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가는 5월들어 다시 강세를 떨것으로 전망되지만 오래지 않아 6월에 들어서면 농번기, 햇청과물의 출현으로 하락세로 치달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은 10월까지 계속 산란계 보유수수가 늘어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능력나쁜 노계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난가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에 난용 초생추입추량이 작년의 입추량보다 결코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념을 갖기보다는 육성기에 관리를 잘하며 좋은 산란능력을 지속시키는 데에도 전력을 다하여야 되리라 생각한다.

(2) 육계가격—하이브로 생체키로당 560~600원,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세미(키로

당) 550원(약세)~600원하는곳도 있다. 그간의 육계가격의 강세로 이에 자극받은 업계는 전용육계는 물론 숫병아리, 세미, 왕병아리까지 총동원된 생산체계를 형성하여 육계가격유지에 마이너스적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의 육계가격을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5월들어 약간 상승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6월들어 다시 하락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3) 노계가격—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580원~510원. 노계출하량은 7월까지 계속 감소하는 실정에 있어 노계가격유지에 좋은 작용을 하겠지만 6월 장마철에 육계가격 하락에 의한 전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계출하량은 7월을 지나면서 급격히 증가하여 가장 난가가 나쁜 11월달에 최고에 달할것(6월출하량의 2배에 해당하는량)으로 보여 노계값 하락이 극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 양계진문

미국인들은 계란을 어떤 방법으로 먹을까? 미국 가정에서는 스크램블드(우유나 과일과 계란을 혼합하여 휘저어 익혀 먹는것)를 가장 좋아하고 다음이 계란후라이, 완숙, 반숙의 순서라고 캘리포니아 계란 프로그램 조사서가 밝히고 있다.

◎ 5월에는 이런일을……계란보관실 청소 및 수리, 환기창정비, 비새는곳 수리, 배수로 개수, 길정비, 절당은 새벽쪽으로 증가시킨다.

월간양계 정기구독  
찬조회원 모집

저의 월간양계를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은 아래주소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시 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협회 우편번호 100  
대체구좌 : 519272  
전 화 : 22-3571~2. 6917

양계가 여러분의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 양지

## 가축약품

## 부화장

◇ 오스폴중엄진분양  
◇ 경연·사양관리상담  
◇ 동물약품 열가 도산매

네오크로 } 고농도분말  
관 옥 시 }

네오크로 } 산란강화제  
관 옥 시 }

서울·성동구 천호동 413  
전화 : 56-1938, 55-2208